

21세기의 자주외교의 거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주체 107(2018)년에 벌리신 정력적인 정치외교활동들은 그야말로 전세계의 파문을 련속 불러일으켰다. 이를 목격하며 터치는 국제사회의 존경과 찬탄, 칭송의 목소리들은 끝이 없다.

세계언론들은 《세계외교사에 전례없는 일》, 《김정은식외교의 가장 전형적인 실례》, 《올해 김정은위원장의 주동적이고 련속적인 외교공세에 세계시간이 전례없이 빨라진것같은 느낌》 등으로 격찬하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21세기 자주외교의 거장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미국의 어느 한 인터넷웹사이트에는 《미국과의 수뇌회담에서 세계적인 지도자로서의 김정은위원장의 영상 부각》, 《김정은령도자의 정력적인 외교활동으로 지역의 력학구도가 크게 변한 상대》 등의 내용의 기사가 실려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국제사회는 미국집권자가 《김정은위원장은 위대한 인격을 갖춘 뛰어난 훌륭한 협상가, 굉장히 많은 재능을 가지고있으며 자기 조국을 매우 사랑하시는분》이라고 말한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러면서 초대 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인 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그토록 최대의 레우로 대한것은 그이께서 세계정치계의 거장이심을 확고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평하였다.

도이칠란드 베를린에 있는 한 출판사 사장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최근 조선반도정세에서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라고 간주하고있다고 하면서 나라의 자주권수호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이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천출위인상에 매혹되어 그이를 《현시대의 가장 출중한 정치지도자》, 《자신감을 가지고 국제정치정세를 주도해 나가시는 로숙한 정치가》, 《비상한 용단을 지니신분》으로 높이 칭송하는 목소리들은 날이 감에 따라 더욱 고조되고있다.